



튼튼한 지식재산 생태계,
기업성장 견인



보도자료

www.kipo.go.k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문 의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과 장 남영택 주무관 황수진	042-481-5999
	관세청 특수통관과	과 장 이철재 사무관 이효진	042-481-7832
		2015년 8월 18일(화)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8월 17일(월)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현지 세관 지재권 등록, K-브랜드 보호의 첫걸음

- 중국 등 세관 지재권 등록 매뉴얼 발간 및 기업설명회 개최 -

- 특허청과 관세청은 TIPA(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와 함께 아시아 주요 4개국 - 중국, 홍콩, 태국, 베트남의 세관 지재권 등록 매뉴얼을 발간하였다.
- 이 매뉴얼은 외국세관에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는 방법과 세관 보호절차, 지식재산권 침해 적발 시 처벌에 대한 내용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외국세관에 지식재산권 등록을 통한 통관단계 단속은 소규모 모조품 판매상 단속에 비해 매우 효율적임에도 우리 기업의 외국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건수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 대부분의 국가가 지식재산권이 세관에 등록되지 않으면 침해물품을 단속하지 않음

* 중국세관 지식재산권 등록건수(2015.4) : (미국) 4,004건, (프랑스) 633건, (독일) 892건, (중국) 12,688건, (일본) 1,333건, (한국) 151건

- 이에 특허청과 관세청은 중국 등 우리기업 모조품 유통 피해가 심각한 국가의 세관 지식재산권 제도를 조사하여 매뉴얼을 발간·배포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매뉴얼은 TIPA(www.e-tipa.org), 국제지재권분쟁정보포털(www.ip-navi.or.kr), IP-DESK(www.ip-desk.or.kr), 관세청,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KOTRA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 특허청과 관세청은 오는 21일 서울세관 강당에서 해외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세관 지식재산권 등록의 필요성과 방법,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참여기업 신청 : < http://www.e-tipa.org/wp/?page_id=2326 >, ☎ 02-3445-3761,2

□ 특허청 권오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 활성화를 위해 중국, 미국, 일본 등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가 설치된 국가에서 운영 중인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 지원 사업*을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였으며,

* 중소·중견 기업 대상으로 기업별 연간 8건 한도에서 세관 지재권 등록비용의 50%까지 지원(중국·태국 최대 300\$/건, 베트남 1000\$/건)

- 성태곤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외국 세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외국세관의 국경조치를 유도할 것이며, 해외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로 유입되는 모조품의 차단을 위해 국내 통관단계에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례 1> 휴대용 면도날 120만개 적발

중국세관에 상표권을 등록한 A사는 ‘11년 중국 절강성 영파세관으로부터 나이지리아로 수출하려던 휴대용 면도날 120만개가 적발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세관 압류를 요청하였다.

침해업체는 압류 요청 취하 조건으로 재발방지서약, 수입업자 정보제공, 침해품 전량 폐기, 중앙일간지에 사과문 게재, 손해배상금 지급 등의 합의안을 제시하였다.

<사례 2> 공업용 벨트 15만개 적발

중국세관에 상표권을 등록한 B사는 ‘14년 영파세관에서 등록상표를 침해한 화물(공업용 벨트 15만개)을 발견하여 침해기업을 상대로 행정처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한 결과 모두 승소하였다. 행정처벌은 벌금이 부과되며, 민사소송 승소는 침해업자의 수출등급 하락·세관 적발 횟수 증가 등의 효과가 있다.